추리소설과 문학교육

조 현 일*

<차례>

Ⅰ. 매개적 독서물로서의 추리소설
Ⅱ. 추리소설의 특성: 탐정과 발견의 행위
Ⅲ. 발견의 행위로서의 가추법(abduction)
Ⅳ. 추리소설의 이데올로기적 함정
Ⅴ. 추리소설의 문학 교육적 의미

Ⅰ. 매개적 독서물로서의 추리소설

하우저에 따르면 서구의 경우 대중예술은 19세기 중엽 이후에 등장하였으며, "예술에서 정신집중의 방법보다는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을, 교육적인 것이나 심화된 이해력보다는 오락거리를 발견하려는 희망이 지배적이 되었던 풍조가 시작됨과 더불어 시작된다."[1] 기분전환으로서의 오락이 필요하게 된 것에 대중예술이 등장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대중소설 역시 예외는 아니며 21세기에서의 상황 역시 근본적 동기는 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대중은 진지한 삶의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소설을 읽는다기보다는 기분전환을 위해 소설을 읽는 경우가 많으며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논리는 잘 팔리는 장르의 단순 재생산을 강화하고 있다.

* 홍익대학교 강사

1) 아놀드 하우저(황지우 역), 『예술사의 철학』, 돌베개, 1983, p.341.

우리의 경우 무협, 추리, 멜로 등의 대중소설이 지배적이다가 최근 인터넷의 보급과 더불어 환타지, S/F로 확산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 신세대들이 주력하고 있는 장르는 추리, 환타지, S/F인데 물론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장르는 환타지다. 정과리는 그 중요한 이유를 장르의 속성, 즉 "S/F와 추리소설이 지적이라면 판타지는 감성적"[2] 장르라는 점에서 찾고 있다. 비록 인터넷을 다룰 줄 안다고 할지라도 아직 한국의 대중과 대중 작가는 여전히 감성적 장르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의 경우 애거사 크리스티가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5억부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문학에서 추리소설은 이상할 정도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대중소설 가운데 특히 추리소설에 주목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현상 때문이다.

> 최근에는 IMF 이후 일시 사라졌던 가벼운 대중서를 추구하는 보수적인 교양중산층 독자들이 다시 독서시장에 결집되기 시작했다. 『셜록 홈즈』 시리즈, 『괴도 신사 루팽』 등 이미 검증된 추리소설을 경쟁적으로 읽는 독자들이다. 이들은 고급한 인문서를 즐기는 교양중산층 독자와는 격을 달리한다. 책을 읽는다는 행위 자체는 선호하지만 진지한 인문서를 읽기에는 다소 버겁고, 그렇다고 3류 '섹스 소설'을 읽기에는 자존심이 상하는 계층이다. 본격소설보다는 중간소설을 즐겨 읽는 사람들이다.[3]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02년 전반부에 홈즈, 루팽 등 서구의 고전적 추리소설들이 베스트셀러 10위에 육박하였는데, 대표적인 추리소설작가 이상우는 이에 대해 "그야말로 추리소설의 신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는 기분"[4]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IMF의 재난이 어느

2) 정과리,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 『문학교육학』, 2001 봄, p.108.
3) 한기호, 「독서의 대중화를 통해 우리 출판의 '르네상스'는 가능할까?」, 『한국사회의 독서현상에 대한 조명』, 한국독서학회 10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02.5, p.74.
4) 이상우, 「추리소설, 다시 독자의 관심 속으로」, 『예전엔 미쳐서 몰랐어요』, 한국추리작가협회 엮음, 태동출판사, 2002, p.6.

정도 무마된 상황에서 서구의 고전적 추리소설이 대중들의 주요한 읽을거리로 부상하였고 일종의 붐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비록 우리 나라 추리소설에 대한 관심의 표현은 아닐지라도 추리소설이라는 장르 자체에 대한 대중의 욕망이 활성화되었음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고가 추리소설에 주목하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대중소설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상 때문이다. 인용문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그것은 '중간소설'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독자들은 반드시 '검증된 추리소설'을 요구한다. 검증을 요구하는 근본적 이유는 추리소설이 지적 장르라는 데 있다. 추리소설은 탐정과 범인의 대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작가와 독자의 지적 게임으로서 작품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감상적 동일시에 기초한 여타의 대중 소설과 결정적으로 구별된다. 엄밀한 상황 설정과 게임 규칙에 대한 준수가 필수적인 만큼 독자는 지적 장르로서의 품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서구의 고전적 추리소설을 찾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추리소설은 일종의 중간소설로 분류될 수 있고 여타의 대중 소설에 비해 보다 밀접하게 본격소설과 연결된다. 벤야민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추리소설가인 가스통 루르의 『오페라의 유령』에 대해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소설 가운데 하나"[5]라고 평가하였으며, 지드는 미국의 대표적인 비정파 추리소설 작가인 대실 해밋에 대해 "대화들은 헤밍웨이나 포크너보다 나았으며, 전체 내러티브는 무자비한 냉소주의와 뛰어난 솜씨로 짜여져 있었다"[6]라고 평가하였다. 추리소설의 명작들은 당대 최고의 문학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것이다.

추리소설은 이상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문학 교육적 측면에서 여타의 대중소설과 달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격소설과 대중의 분리가 회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5) W. Benjamin, "One Way Street", Reflections, ed. P.Demetz, Scocken Books, 1978, p.65.
6) E. Mandel(이동연 역), 『즐거운 살인』, 이후, 2001, p.75.

다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적 가치에 대한 추구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추리소설은 단순한 오락거리 이외의 어떤 의미도 찾기 힘든 저질의 인터넷 소설들로부터 벗어나 본격소설에 이르는 매개적 단계의 독서물로서 자연스럽게 설정될 수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점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나름의 해결책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추리소설이 지적 장르라고 할 때,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나름의 해답은 문학교육적 차원에서 추리소설을 교육한다고 했을 때,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에 대해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2장에서 추리소설의 장르적 특성을 간략히 고찰하고 3장에서 도일의 작품을 중심으로 추리소설의 핵심에 가추법이라는 독특한 사유방식이 존재한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는 추리소설이 대중소설의 함정 또한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때, 이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4장에서 추리소설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탐정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기능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비정파 추리소설작가라고 할 수 있는 김성종의 작품을 예로 들고자 한다. 김성종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그의 소설에서의 문학교육적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경우 비정파 추리소설이 발달했다는 점, 비정파 추리소설은 그 자체로 추리소설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보다 명확히 드러낸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기초로 5장에서 추리소설의 문학 교육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Ⅱ. 추리소설의 특성 : 탐정과 발견의 행위

추리소설은 범박하게 정의할 때, "수수께끼같은 살인 사건이라는 형태로 질서 정연한 시민사회의 일상세계에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터지고 천재적인 탐정이 살인자를 추적해 나가 결국 사건을 해결

함으로써 이성이 승리를 거둔다는 내용"[7]의 소설을 가리킨다. 그 최초의 형태는 포우의 「모르그가의 살인사건」(1841)인데, 이로부터 유래하는 일정한 형식적 특성에 대해, 탐정에 주목할 경우 탐정소설, 탐정의 추리과정에 주목할 경우 추리소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8]

토도로프에 따를 때, 추리 소설은 서사구조상 두 가지 이야기가 특이한 방식으로 공존한다는 데 특색이 있다. 그 하나가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해당하는 '범죄의 스토리'라면, 다른 하나는 어떻게 독자 혹은 화자가 그것에 대하여 알게 되는가에 해당하는 '조사의 스토리'이다. 범죄의 스토리는 조사의 스토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끝나 있다는 점에서 텍스트상 부재하는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데, 탐정은 조사의 스토리 속에서 행위가 아니라 조사를 통해 첫 번째 스토리를 재구성해냄으로써 범인을 밝혀내게 된다.[9] 토도로프의 지적은 추리소설의 서사구조 및 그와 유관한 장르들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범죄의 스토리가 전면에 등장하고 주인공이 탐정이 아닌 범죄자로 대체될 때, 그 소설은 범죄소설이 되며, 범죄의 스토리와 조사의 스토리가 공존하면서 주인공이 탐정도 범죄자도 아닌 희생자가 될 때 그 소설은 서스펜스 소설이 된다.[10]

---

7) V. Zmegac, D. Borchmeter(류종영 외 역), 「탐정문학」, 『현대문학의 근본개념 사전』, 솔, 1996, p.452.

8) 추리소설은 영미의 경우 Detective story, Mystery story로, 프랑스의 경우 Roman policier로 칭해지고 있다. 본고는 송덕호의 견해에 따라 이 모든 것을 총칭하는 용어로 추리소설(tale of ratiocination)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송덕호, 「추리소설의 유형」,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대중문학회 편, 국학자료원, 1997 참고.

9) T.Todorov(신동욱 역), 「탐정소설의 유형」, 『산문의 시학』, 문예출판사, 1992, pp.50-52.

10) 이와 같은 서사구조상의 분류는 각 장르의 시점 역시 일정한 경향성을 띠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해준다. 뢰테르는 토도로프의 분류법에 기초해 추리소설을 미스테리 소설(일종의 고전적 추리소설), 범죄소설, 서스펜스 소설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미스테리 소설은 탐정의 추리과정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면서도 탐정의 모든 생각을 다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으로 인해 왓슨과 같은 인물을 설정하고 일인칭 관찰자 시점을 취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그리고 범죄소설은 범죄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일인칭 시점을, 서스펜스 소설은 희생자, 범죄자, 주변인물 모두의 시점을 왕복하는 식의 고유한 전지적 작가시점을 취하는 경향성을 갖게 된

그러나 모든 형식적 정의와 분류법이 그러하듯이 추리소설에 대한 이와 같은 설명은 구조적 특성을 설명해줄 뿐 추리소설의 핵심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우선 범죄소설과 서스펜스 소설은 추리소설과 구조상 유사한 점이 있다할지라도 근본적 차원에서 상이한 장르라고 보아야 한다. 범죄소설은 추리소설의 등장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서스펜스 소설, 범죄소설 공히 추리소설의 고유성으로 앞서 지적한 지적 장르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비정파(hard-boiled) 탐정소설[11]의 경우 추리소설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위의 분류법에 따를 때, 조사의 이야기와 이를 저지하려는 또 다른 범죄의 이야기가 공존한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서스펜스 혹은 범죄소설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비정파 탐정소설이 서스펜스가 아니라는 점은 너무나 명확하며 비록 추리보다는 행동이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탐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일반적 범죄소설과도 다르다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추리소설의 핵심은 탐정과 그와 짝을 이루는 추리라는 항목에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설명 가능하게 된다. 블로흐에 따르면 18세기 중엽까지 모든 소송은 고문과 자백에 기초하고 있었다. 계몽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소송을 '증거에 의한 소송'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하였던 바, 이후 증거는 배심원과 심판관 앞에서의 증명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추리소설 이전의 바로크 소설이나 고딕소설에서도 살인 장면과 음모, 긴장은 넘쳐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리소설의 고유성은 그것이 증거에 의한 소송의 확립 이후에 등장한다는 점에 있다.

> 살인장면은 도처에 있었으며, 오로지 탐정의 기술에 의해서만 간파될 수 있는 음모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긴장은 주로 탐정이 아니라 범

다. Y. Reuter(김경현 역), 『추리소설』, 문학과지성사, 2000 참조.

11) 비정파 탐정소설은 『안녕 내 사랑』을 쓴 레이몬드 챈들러, 『말타의 매』를 쓴 대실 해밋 등에 의해 1930년대에 발전된 미국식 탐정소설이다. 뒤팽, 홈즈 등 고전적 추리소설에서 탐정은 범죄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지적 추리를 통해 범죄자를 추적하는데 반해 비정파 탐정 소설에서 탐정은 용의자들과의 실존적 연루 속에서 거친 행동을 통해 범죄자를 추적한다.

> 죄자에 의해 제공되고 있었으며 탐정은 부재했다. 그러므로 탐정을 포함하는 스토리는 과거의 전통적인 요소들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 그것은 임무를 위임받은 탐정의 증거 추구 그리고 그 증거의 의미를 서술적으로 이해시키는 행위 이후에 온다.(밑줄: 인용자)12)

기존의 모든 범죄소설, 서스펜스 소설과 구별되는 일차적인 특징은 탐정의 등장에 있다. 그리고 이때의 탐정은 '증거에 의한 소송'을 위해 그 임무를 위임받은 자이다. 이러한 탐정의 증거 탐색과 그 증거의 의미에 대한 서술이야말로 역사적인 차원에서 추리소설만의 고유성을 의미하며, 추리소설을 이전의 모든 범죄소설, 서스펜스 소설과 구별되게 만드는 본질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블로흐는 추리소설의 양식적 특성으로 다음 세 가지, 즉 첫째, 탐정과 같은 방식으로 추측하기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긴장감, 둘째, 발견의 행위, 셋째, 서술되지 않은 요소의 재구성을 들고 있다. 두 번째 사항('발견의 행위')이 탐정의 증거 탐색, 즉 추리행위를 의미한다면, 세 번째 사항('서술되지 않은 요소의 재구성')은 증거의 의미에 대한 서술, 즉 추리 행위 뒤에 이루어지는, 범죄의 최종적인 재구성을 의미하며, 첫 번째 사항은 그 과정에서 독자가 느끼는 긴장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추리소설에서 독자가 느끼는 긴장감은 범죄의 끔찍함에서 유래하는 긴장감이 아니라 탐정의 추리로부터 유래하는 긴장이라는 점, 최종적인 재구성이 추리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추리소설의 가장 근본적 표지는 두 번째 특성, 즉 증거의 탐색 내지는 발견의 행위이다.

이상과 같이 탐정의 발견의 행위, 그리고 이때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탐정이라는 존재에 추리소설의 핵심이 있다고 할 때, 고전적 추리소설과 더불어 주목되어야 할 것은 범죄소설, 서스펜스 소설이 아니라 비정파 탐정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정파 탐정 소설은 탐정과 탐정의 추

12) E. Bloch, "A Philosophical View of the Dectective Novel", *Literay Essays*, ed. W. Hamacher & D.E. Wellber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p.211.

리 행위가 중심이 되는 가운데 일정한 변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추리소설의 양대 산맥은 고전적 추리소설과 비정파 탐정소설이며, 그 외의 스파이 소설, 범죄소설, 서스펜스 소설 등은 추리소설과는 사실상 무관한 장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Ⅲ. 발견의 행위로서의 가추법(abduction)

탐정의 존재와, 탐정의 '발견의 행위'가 추리소설의 핵심이라고 할 때, 발견의 행위에 대한 성격 규정이 문제가 된다. 추리소설에서 탐정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건의 실마리를 수집하고 해석하는가? 도난 코일의 추리소설에서 경찰은 사건 현장의 어떤 것이 사건 해결의 단서인지 이해하지 못하며 그 결과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거나 죄 없는 자를 범인으로 지목한다. 홈즈만이 흔적, 징후, 단서를 발견하고 일정한 추론과정을 거쳐 범인을 밝혀낸다. 만델은 이러한 셜록 홈즈의 방법을 "선견-연역divination-deduction"[13]의 기법이라고 주장하며, 블로흐는 "과학적-귀납적 방법 the scientific-inductive method"[14]이라고 규정하는데, 이에 대한 좀더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홈즈가 『네 사람의 서명』에서 훌륭한 탐정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관찰력, 지식, 추리력을 꼽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15] 이때 추리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능력인가가 중요한데, 홈즈는 그것을 『주홍색 연구』에서 '분석적 사고 능력'이라고 칭한다.

(1) 이미 설명 드린 적이 있지만, 특이한 요소는 사건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건 해결의 길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

13) E. Mandel, 앞의 책, p.44.
14) E. Bloch, 앞의 글, p.215.
15) A.C. Doyle(백영미 역), 『네 사람의 서명』, 황금가지, 2002, p.13.

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꾸로 추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지요. 이것은 대단히 유용하고 쉽지만 사람들이 잘 연마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일상 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을 토대로 순차적으로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식이 더 쓸모 있기 때문에 거꾸로 추리해 나가는 방식은 무시당하기 십상입니다. 종합적 사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천 명 있다면 분석적 사고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한 명 밖에 없는 형편이지요16)

(2) "정말 우스울 정도로 간단해서 설명하는 게 불필요하게 느껴질 정도라네. 하지만 그건 관찰과 추리의 경계를 명확히 가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어. 나는 자네 발등에 황토흙이 묻어 있는 걸 관찰을 통해 알았네. 그런데 윅모어가 우체국 건너편에는 도로 공사를 하느라 길을 파헤쳐 놓아서 흙이 드러나 있지. 그 흙을 밟지 않고선 우체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그리고 그 유난히 붉은 황토는 내가 알기로는 이 근방에서 거기 말고는 없네. 여기까지가 내가 관찰한 것일세. 나머지는 추리해 낸 것이지"

"그러면 내가 전보를 쳤다는 사실을 어떻게 추리했지?"

"나는 자네가 편지를 쓰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나는 오늘 아침 내내 여기 앉아 있었거든. 또 지금 자네 책상에는 우표와 두툼한 엽서 뭉치가 놓여 있네. 그러면 우체국에 가서 전보를 치는 것 말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요소는 다 지워버렸을 때 남는 것 하나가 진실임에 틀림없네."17)

인용문 (1)에서 제시되듯 홈즈가 주장하는 분석적 사고능력이란 곧 '거꾸로 추론하기'를 가리킨다. 그것은 '특이한 요소'를 발견하고 그 원인을 거꾸로 찾아나가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도일의 추리소설에서 제시되는 수많은 추리는 곧 이러한 거꾸로 추론하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18) 이것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인용문 (2)를 예

16) A.C. Doyle(백영미 역), 『주홍색 연구』, 황금가지, 2002, pp.204-205.

17) A.C. Doyle(백영미 역), 『네 사람의 서명』, 황금가지, 2002, pp.14-15.

18) 『주홍색 연구』와 『네 사람의 서명』에서 뽑은 위의 인용문은 퍼어스의 가추법에 주목하고 있는 기호학자들이 홈즈의 추리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 자주 인용하는 부분이다. T.A.Sebeok, J.U.Sebeok는 「"자네는 내 방법을 알고 있네" : 찰스 퍼어스와 셜록 홈즈를 나란히 비교하기」, 『논리와 추리의 기호학』, 김주환·한은경 역, 인간사랑, 1994, pp.74-75에서 『네 사람의 서명』의 인용문을 제시하면서 홈즈의 가추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M. Truzzi는 「응용사회심리학자 셜록홈즈」『논리와 추리의 기호학』,

로 삼아 확인해 보자. 홈즈는 왓슨의 구두에 황토흙이 묻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삼 단계의 거꾸로 추론하기'를 거쳐 왓슨이 윅모어가의 우체국에서 전보를 쳤다는 사실을 추론해낸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최초의 '특이한 요소'는 왓슨의 신발에 묻어 있는 황토흙이다. ① 황토흙이 묻어 있다는 사실은 왓슨이 비포장 도로를 걸어 다녔다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② 비포장 도로를 걸어다녔다는 점은 왓슨이 도로 공사로 황토흙이 노출 되어 있으며 우체국이 위치해 있는 윅모어가에 갔었다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③ 왓슨이 편지를 쓰지 않았으며 우표나 엽서를 필요로 하지도 않았다는 점은 왓슨이 전보를 치기 위해 우체국에 갔었다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각 단계의 '특이한 요소'는 설정된 각각의 가정에 의해 설명되는 바, 홈즈는 세 단계의 거꾸로 추리하기를 거쳐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19] 홈즈는 범죄 현장의 단서, 징후, 흔적 등 '특이한 요소'를 관찰하고 이와 같은 거꾸로 추론하기, 즉 적절한 가정 설정을 통해 단서를 설명해 냄으로써 결과적으로 범죄자의 색출에 성공하게 된다.

거꾸로 추론하기의 핵심은 '특이한 요소'를 설명해주는 독창적이고 설득력 있는 가정의 설정에 있다. 에코를 포함한 많은 기호학자들은 홈즈의 이러한 거꾸로 추론하기가 궁극적으로 가정적 추론, 즉 가추법(abduction)을 의미한다고 본다. 홈즈 자신이 연역에 관해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야기 중 그런 실례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또한 흔히 귀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귀납법이라기보다는 기호학자 퍼어스가 가추법이라고 지칭한 방법을 끊임없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20] 퍼어스는 그의 가추법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명한 예를 들고 있다.

---

p179-188에서 지식, 관찰력, 연역의 능력(추리) 각각에 대해 상세히 고찰하면서 특히 연역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주홍색 연구』의 인용문을 제시하고 있다.

19) U. Eco, 「아리스토텔레스의 뿔, 볼테르의 말발굽, 홈즈의 발등」, 『논리와 추리의 기호학』, 김주환 · 한은경 역, 인간사랑, 1994, pp.159-160.

20) M. Truzzi, 앞의 글, p.192.

결과 : 이 콩들은 하얗다
규칙 : 이 주머니에서 나오는 콩은 모두 하얗다.
사례 : 이 콩들은 모두 이 주머니에서 나왔다.21)

우리가 탁자 위에 주머니 하나가 있고 그 옆에 흰 콩이 놓여져 있는 어떤 방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는 콩이 하얗다는 특이한 사실을 발견한다. 그리고 만약 이 주머니에서 나온 콩이 모두 하얗다면 이 콩은 모두 이 주머니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추론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의 특이한 사실(결과)를 보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정(규칙)을 설정한 후 이 콩들은 모두 이 주머니에서 나왔다(사례)는 추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홈즈의 추론 과정과 동일하다.

결과 : 왓슨의 구두에 흙이 묻어 있다.
규칙 : 비포장 도로를 걸어다니면 언제나 구두에 흙이 묻는다.
사례 : 왓슨은 비포장 도로를 걸어다녔다.

홈즈는 '왓슨의 구두에 황토흙이 묻어 있다'는 특이한 사실(결과)을 발견하고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비포장 도로를 걸어다니면 언제나 구두에 흙이 묻는다'라는 가정(규칙)을 설정한 후에 '왓슨은 비포장 도로를 걸어다녔다'는 추론(사례)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홈즈의 추론 방법과 퍼어스의 가추법은 모두 가정적 추론이라는 점, 즉 놀라운 사실(결과)을 발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특정한 명제(규칙)를 가정함으로써 놀라운 사실의 설명(사례)에 도달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물론 퍼어스의 가추법과 홈즈의 가추법에는 일정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하나가 놀라운 특정 사실에서 출발하여 일반적인 법칙의 가정에 도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면, 즉 이 주머니에서 나오는 콩

21) 퍼어스에게 연역법은 규칙과 사례로부터 결과를, 귀납법은 사례와 결과로부터 규칙을, 가추법은 결과와 규칙으로부터 사례에 이르는 논증방식이다. 논증의 확실성은 연역이 가장 높고 가추법이 가장 낮지만, 새로운 지식의 생산성은 가추가 가장 높으며 연역이 가장 낮다. 김성도, 『현대 기호학』, 민음사, 1998, pp.156-170 참조.

은 모두 하얗다라는 법칙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추법이라면, 다른 하나는 놀라운 특정한 사실에서 출발하여 이것의 원인으로 보이는 또 다른 특정 사실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즉 왓슨은 비포장 도로를 걸어다녔다는 사례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추법이라는 점이다. 모든 과학적 발견이 전자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면 모든 범죄 수사는 후자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22]

독자는 홈즈의 추리 과정을 작품의 마지막에야 알게 되고 흔히 놀라움에 빠져들게 된다. 그리고 사건 의뢰자, 왓슨, 독자는 일종의 마술을 보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힌다. 이러한 마술의 핵심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가추법이라는 논증 방식이다. 그것이 놀라움을 주는 이유는 범죄의 수사를 위해서 실제로 사용될 때, 무수히 많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각 단계의 가추법은 무수히 많은 가능성(가정) 중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다. "불가능한 요소는 다 지워버렸을 때 남는 것 하나가 진실임에 틀림없네"라는 홈즈의 말처럼 그의 추리는 단계마다에서 여러 불가능한 요소들을 지워나감으로써 그 단계에서의 진실을 밝혀내는 작업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추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결과)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가정(규칙)을 설정하고 그 놀라운 사실의 원인(사례)을 밝혀내는 한 차례의 가추법'을 구사하고 나면 그로 인해 도출한 '놀라운 사실의 원인'(사례)이 재차 놀라운 사실(결과)로 설정되어 또 다른 가정을 설정하는 식의 과정이 무수히 반복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23]

---

22) U. Eco, 앞의 글, pp.137-138.

23) 본고는 문학교육의 관점에 입각하고 있는 만큼 현재 많이 읽히고 있는 독서물(도일의 작품)을 대상으로 그 속에 나타나는 가추법을 재구성해 보았다. 우리의 추리소설을 대상으로 그 속에 나타나는 '가추법'을 살펴보려고 할 경우 조성면, 「한국의 탐정 소설과 근대성」, 『대중문학과 정전에 대한 반역』, 소명출판사, 2002가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추리 소설의 개척자 김내성을 대상으로 한 이 논문은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가추법을 최초로 문제삼아 정밀한 분석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추리소설과 근대성과의 관계를 논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고 역시 이 논문에 힘입은 바 크다.

Ⅳ. 추리소설의 이데올로기적 함정

추리소설은 탐정의 지적 활동, 즉 가추법 덕분에 여타의 대중소설과는 달리 지적 장르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고 탐정의 지적 활동을 놓고 벌어지는 독자와 저자의 지적 게임이 필수적인 만큼 독자는 대중소설의 폐해라고 할 수 있는 감상적 동일시로부터 일정 정도 벗어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적 추리소설의 경우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와 사물화된 세계관을 전파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것이 직접적으로 전파되고 있지는 않다. 고전적 추리소설은 일정한 구조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데, 그 형식적 특성 자체가 보수적 이데올로기와 사물화된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첫째, 추리소설은 서사구조 자체가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함축을 담고 있다. 토도로프의 지적대로 추리소설은 서사구조상 범죄의 이야기가 아니라 범죄자를 찾아내는 조사의 이야기이라는 점, 범죄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수한 범죄소설이나, 범죄를 테마로 하는 본격소설, 예를 들어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과 같은 작품과 구별된다. 그러나 범죄 자체를 문제삼지 않고 범인만을 색출하는 추리소설의 서사구조는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불변의 고정관념, 즉 범죄자는 끔찍한 범죄로써 부르조아 시민사회의 안전을 파괴한 악인일 뿐이라는 관념을 전제한 상태에서나 가능하다. 추리소설에 등장하는 이와 같은 범죄자는, 피카레스크 소설의 고귀한 악당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반역자로서의 의미가 제거되었을 때, 즉 만델의 지적에 따른다면 사유재산에 대한 반역이 개인화 되어 반역자가 그 사회적 의미를 잃고 도둑이나 살인자 등의 무자비한 범죄자로 간주되게 될 때 가능해진다.[24] 또한 추리소설은 범죄에서 사회적 의미를 제거함으로써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범죄를 탈인격화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 본격소설에서 범죄는 사회적, 심리적, 윤리적 탐구의 대상이 되며 인간적 문제로 취급되는 데 반해, 추리

24) E. Mandel, 앞의 책, pp.24-26.

소설에서 범죄는 이 모든 것이 제거된 상태에서 단순히 해결해야 할 수수께끼로 전환되어 탐구된다.[25] 추리소설이 범죄에서 사회적 의미를 제거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은 그것이 범죄에 대한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고찰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범죄에서 사회적 의미를 제거하는 것은 해당 사회의 계급적 통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때 가능하다. 그로 인해 고전적 추리소설은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영국에서 발전하였다. 그러나 계급간의 대립이 문제가 되는 사회의 독자가, 범죄에서 사회적 의미를 제거함으로써 가능한 추리소설을 읽는다면 추리소설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담당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 범죄의 탈인격화는 좀더 은밀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추리소설에서 범죄적 행위는 그 인간적 의미를 상실하고 분석적 행위의 단순한 대상으로 전환되는데, 이는 인간적 행위를 경험적으로 추측 가능한 기계적 행위로 간주할 때 가능한 만큼 인간의 사물화를 극단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앞서 제시한 바 있듯이 추리소설의 핵심이 탐정과 탐정의 발견의 행위에 있다고 할 때, 이 발견의 행위가 곧 가면 벗기기 행위이기도 하다는 점, 즉 가해자로 가장 의심되지 않는 인격의 가면을 벗기는 행위라는 점에서 추리소설은 철저하게 소외된 세계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탐정은 모든 사람을 용의자로 간주하는데, 그 근본에는 인간이란 일상적으로 표리부동한 삶을 살아가며, 따라서 모든 사람은 가면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놓여져 있다. 추리소설의 세계는 "어떠한 일도 누구에게든지 이제 기대할 수 있다"[26]라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추리소설 속의 세계는 자신의 동료, 자신의 창조물, 심지어는 자신까지도 믿을 수 없는, 불신으로 가득찬 세계, 교환경제의 논리가 인격에까지 침투하여 누구든 교환 가능하며 어떤 극악한 일이든 벌일 수 있는 세계가 된다.

---

25) E. Mandel, 위의 책, p.41, p.82 참조.
26) E. Bloch, 앞의 글, pp.216-217.

> 그러나 위선의 이러한 보편적인 시대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유형의 문학 장르는 벤야민의 말대로 "한편의 부르조아 복마전"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아울루스 겔리우스가 기원후 2세기에 쓴 『아티카에 대한 노우트』라는 고대의 글은 다음과 같은 행을 포함하고 있다 : "당신의 친구들을 마치 미래의 적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루어라". 철저하게 비기독교적인 이 문장은 변화되지 않은 채 남겨져 있는 탐정소설의 시간과 공간을 드러내고 있다.[27]

블로흐의 지적 대로 추리소설은 근본적으로 현실 세계의 위선에 기초한 장르이다. 그리고 현실 세계의 위선을 누구든 폭로하고 지적할 수 있다. 문제는 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담겨져 있느냐이다. 추리소설은 그 시공간이 '당신들의 친구들을 마치 미래의 적일 수 있는 것처럼 다루어라'는 명제에 의해서 지배된다. 그것은 위선적 세계에서의 진정한 인간관계에 대한 탐색이나 진지한 성찰 없이 세계에 대한 부정적 견해만을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는 추리소설에서 필수적인 탐정이라는 존재 자체의 미묘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들 수 있다. 고전적 추리 소설에서 탐정은 용의자 집단과 철저히 분리된 채 육체적 활동보다는 지적 활동을 통해 범죄자를 색출한다. 그는 근본적으로 오류를 범하지 않는 존재로서 범죄자를 색출하여 혼란에 빠진 시민적 일상세계를 재차 회복시키는 역할, 즉 체재 수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가 경찰이 아니라 탐정이라는 점이다. 20세기 초반까지 경찰은 부유한 기업가나 귀족의 자제가 아니라 중하층 계급 출신이었다는 점, 고전적 추리소설의 모든 주인공들, 오귀스트 뒤팽, 셜록 홈즈, 아르센 뤼팽 등은 지적인 상류계급 출신의 탐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리소설이 누구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체제 수호의 기능은 하층 계급 출신의 경찰이 아니라 상류계급 출신의 탐정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작품 속에서 탐정이 실제로 범죄자를 색출

27) E. Bloch, 위의 글, p.217.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의 존재 자체로 종국에 사건을 해결하고 진실에 도달할 것이라는 믿음을 보장한다는 점[28]을 고려하면 주인공을 지적인 상류계급 출신의 탐정으로 설정하는 것은 상류계급의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대변하고 있던 고전적 추리소설로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추리소설의 역사에서 이와 같은 특성이 결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비정파 탐정소설에 이르러서이다. 비정파 탐정소설은 고전적 추리소설에 비교하여 추리, 지적활동보다는 행위, 육체적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차이는 고전적 추리 소설의 탐정이 용의자 집단과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데 반해, 비정파 탐정 소설은 탐정들과 용의자 집단이 실존적으로 연루(engagement)된다는 점에 있다. 비정파 탐정소설에서는 탐정 자신도 악에 연루되어 사악함에 이끌리며 그 결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에 이르는 것이다.[29]

(1) 아니, 이제부터 코카인이나 해야지. 난 두뇌 활동 없이는 살 수 없네. 그게 없으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살겠나? 여기 창가로 좀 와보게. 정말 어둡고 우울하고 공허한 세상 아닌가? 저기 누런 안개가 길에서 흘러 다니는 걸 좀 보게. 안개는 어두컴컴한 집들을 넘어 다니고 있네. 이보다 더 지루하고 무미건조한 세상이 어디 있겠나? 여보게 왓슨, 나한테 능력이 있으면 뭘 하겠나? 그걸 발휘해 볼 기회가 없는데. 진부한 범죄, 진부한 삶, 지상에서 진부한 것을 빼면 아무 것도 없네.[30]

(2) 그의 슬픔은 단순한 슬픔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외로운 방랑객이 오랜 여행 끝에 고향에 돌아와 새삼스럽게 자신의 비참함과 생의 허무함을 깨닫고는 울음을 터뜨린 그런 모습이었다. 무엇을 찾아 지금까지 헤매었던가. 황바우도 죽고, 손지혜도 죽었다.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이 어쩔 수 없는 힘 앞에 그는 더욱 패배감을 느꼈고 그래서 더욱 분노를 느꼈고 그런 나머지 절망에

28) S. Žižek(김소연, 유재희 역), 「욕망의 실재를 피하는 두 가지 방법」, 『삐딱하게 보기』, 시각과 언어, 1995, pp.121-122.
29) S. Žižek, 위의 글, pp.125-129.
30) A.C. Doyle(백영미 역), 『네 사람의 서명』, p.20.

몸부림을 했다. 아아, 차라리 모르는 체할 것을……. 그랬더라면 황바우도 손지혜도 살아 있을 것이 아닌가. 괜한 영웅심이 두 사람을 죽게 했다. 그렇다 나는 영웅심에 사로잡힌 놈이다. 어떻게 하겠는가. 책임을 져라. 책임을 지란 말이다. 한낱 보잘것없는 자식. 쓰레기 같은 자식……,[31]

인용문 (2)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비정파 탐정소설 작가인 김성종의 『최후의 증인』의 한 부분이다.[32] 우선 주인공은 탐정이 아니라 형사이다. "10년 가까운 경찰생활에서 시달릴 대로 시달린"[33] 36세의 오병호 형사는 벽촌의 경찰서에서 은둔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인물, 삶의 의욕을 상실한 인간이다. 일년 전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 그의 허무주의는 더욱 심해진다. 이처럼 흔히 비정파 탐정소설에서 주인공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환멸'은 고전적 추리 소설에 이미 그 연원을 찾아 볼 수 있다. 홈즈는 한편으로는 동물적 감각으로 모든 두뇌를 이용해 범인을 추적하는 이성적 인물이지만 범죄가 없을 때는 인용문 (1)에서 드러나듯 '지상의 모든 것이 진부하다'는 권태감에 사로잡힌 채 코카인에 빠져드는 마약 중독자이다. 홈즈와 마찬가지로 비정파 탐정소설의 탐정 역시 범인을 추적하는데서 유일하게 삶의 흥미를 되찾는다. 오병호 형사 역시 범인을 추적하는 행위에서만 생명력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파 탐정소설과 고전적 추리소설의 탐정은 뿌리깊은 공통의 기반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통된 인간상은 탐정에 대한 매혹에 빠져드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들은 사회적 아웃사이더로서 사회에 대한 반항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비정파 탐정 소설의 경우 앞서 제시한 주인공 자신의 범죄와의 실존적 연루로 인해 이러한 면모가 더욱 부각되어 제시된다.

『최후의 증인』의 오병호 형사는 한 건의 살인사건을 추적하는 과정

31) 김성종, 『최후의 증인2』, 고려미디어, 1996, p.310.
32) 김성종의 『최후의 증인』의 서사구조에 대한 연구로는 정희모, 「추리기법의 변용, 서사화의 가능성 : 김성종의 '최후의 증인'에 나타난 추리 기법을 중심으로」,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대중문학연구회 편, 국학자료원, 1997이 있다.
33) 김성종, 『최후의 증인1』, 고려미디어, 1996, p.32.

에서 한국전쟁시 이루어진 범죄의 역사를 알게 된다. 피살자(양달수, 김중엽 변호사)들은 피해자라기 보다는 황바우를 무고하게 살인자로 몰아 감옥에 집어넣고 그의 아내 손지혜를 빼앗은 가해자(양달수)와 공모자(김중엽 변호사)라는 것, 그리고 황바우가 죽인 것으로 되어 있는 한동주가 살아 있으며 김중엽과 양달수를 죽인 자가 비록 황바우의 아들 황태영이지만 이것은 한동주의 교활한 책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범죄라는 점 등을 알게 된다. 오병호는 우여곡절 속에 범인에 접근해 들어가지만 그로 인해 밝혀진 진실은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는 정의를 확립하기보다는 오히려 한동주의 아들을 살해하게 되며 무고한 황바우와 손지혜를 자살에 이르게 만든다. 인용문 (2)는 황바우와 손지혜가 자살한 상황에서 오병호 형사 느끼는 감정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는 "비참함과 허무함"에 사로잡히며, "나는 영웅심에 사로잡힌 놈이다. 어떻게 하겠는가. 책임을 져라. 책임을 지란 말이다. 한낱 보잘것없는 자식. 쓰레기 같은 자식"이라는 울부짖음에서 드러나듯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 죄책감에 사로잡힌다.

이처럼 비정파 탐정소설은 고전적 탐정소설과는 달리 탐정 자신도 범죄와 실존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에 의해 구조상 시작부터 리얼리티를 획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파 탐정소설에서 제시되는 '세계에 대한 환멸'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선악 이분법에 기초한 감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끊임없이 반복되어 생산, 소비된다는 점은 그것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암시한다. 독자는 탐정의 입으로 발산되는 극단적인 환멸의 감정을 추체험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느끼게 마련인 자신의 미미한 허무감을 위로한다. 또한 『최후의 증언』의 오병호 형사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허무함과 죄책감, 정체성에 대한 회의로 인해 결국 자살을 하고 마는데, 이는 비정파 탐정소설의 '세계에 대한 환멸'이 근본적으로 감상주의적 태도에 기초한 것임을 드러낸다. 오병호의 자살은 세계의 부조리함에 대한 감상적 과잉반응으로서 이를 읽는 독자는 가상적인 자살을 추체험함으로써 세계에 대해 복수하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허무의 감정을 정화한다. 결과적으로 비정파 탐정소설에서

제시되는 니힐리즘은 근본적으로 니체가 지적한 바 있는 수동적 니힐리즘으로서 세계의 부조리함에 대해 생산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자기 위안적으로 작용하는 허무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V. 추리소설의 문학 교육적 의미

이제까지 추리소설의 장르적 특성과 그것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발견의 행위로서의 가추법, 그리고 추리소설의 이데올로기적 함정에 대해 고찰했다. 추리소설은 그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가추법으로 인해 지적 장르로서의 위상을 획득하고 여타의 대중소설과 구별되면서도 여전히 이데올기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사물화된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다. 저질의 대중소설과, 대중으로부터 멀어진 본격소설의 매개적 장르로서 추리소설을 설정한다고 할 때, 그것의 문학 교육적 활용은 한편으로는 지적 장르로서의 특성을 활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데올로기적 기능에 비판적 자세를 취하는 데 핵심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 입장 속에서 추리소설의 문학교육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고전적 추리소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추법이 인간의 정신활동의 가장 중요한 작용을 의미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퍼어스에 따를 때, 인간의 모든 정신 행동과 오성적 활동은 귀납법, 연역법, 가추법이라는 세 가지 논증형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특히 가추법은 과학적 추론의 첫 단계이며, 세 가지 유형의 논증 방식 중에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하는 유일한 논증형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34] 가추법은 가장 기초적인 지식획득으로부터 화성의 궤도가

34) 퍼어스에 따르면 가추법은 놀라운 사실을 예견할 수도 있는 명제나 가정을 수용하는 과학적 발견의 첫 단계를 의미한다. 연역법은 그러한 가정이 가지고 올 필연적인 결과를 추적하는 방법이라면 귀납법은 그러한 가정을 경험적으로 시험해보는 방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역법과 귀납법은 가추법 다음에 오는 논증방식으로서 어떤 새로운 생각도 첨부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T.A. Sebeok, J.U. Sebeok, 앞의 글, p.71, p.118 참조.

타원형이라는 케플러의 과학적 발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의 가추법을 설정할 수 있다. ① 결과를 보고 사례를 추론해 내는데 사용되는 매개법칙이 의무적으로 그리고 자동적 혹은 반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유형(지나치게 규범화된 가추법), ② 그 매개 법칙이 백과사전(우리의 지식의 총체)로부터 선택적으로 발견되는 유형(덜 규범화된 가추법), ③ 매개법칙이 새로이 개발되고 창안되는 유형(창조적 가추법)이 그것이다.[35] 움베르토 에코에 따를 때, 앞서 제시한 홈즈의 추리, 즉 왓슨이 우체국에서 전보를 치고 왔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세 단계의 추리는 각각 이 세 가지 유형의 가추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왓슨이 비포장도로를 걸어다녔다는 추론은 매개법칙, 즉 비포장 도로를 걸어다니면 언제나 구두에 흙이 묻는다라는 규칙이 매우 자동적으로 가정될 수 있는 '지나치게 규범화된 가추법'의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추법의 예이다. 반면 두 번째 단계의 가추법은 매개법칙의 선택이 필수적인데 홈즈 역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 매개법칙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다. 즉 비포장 도로가 윅모어가 뿐만 아니라 런던 외곽에도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포장으로 경제성의 원리에 따라 흙이 노출되어 있는 윅모어가를 선택하고 있다. 왓슨이 전보를 쳤다는 마지막 단계의 추론은 사실상 신빙성이 가장 적은 창조적 가추법이라고 할 수 있다. 편지를 부칠 필요도 없고, 우표나 엽서가 필요하지도 않다면 왓슨이 우체국에 가지 않을 확률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홈즈는 마지막 가능성으로서 전보를 치러 갔다는 가정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학적 완결성을 위한 창조적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36] 결과적으로 홈즈의 발견의 행위는 현장의 단서, 징후, 흔적 등 특이한 요소

35) 세 가지 유형은 본파티니와 프로니의 분류이고 '지나치게 규범화된 가추법', '덜 규범화된 가추법', '창조적 가추법'이라는 명칭은 에코의 용어이다. 에코는 이 외에도 메타 가추법이라는 또하나의 유형을 설정하고 있다. M.A. Bonfantini, G. Proni, 「예측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리와 추리의 기호학』, p.302, U. Eco, 앞의 글, pp.141-143 참조.

36) U.Eco, 위의 글, pp.159-160 참고.

(결과)를 관찰하고 이를 설명해줄 수 있는 가정(규칙)을 설정함으로써 놀라운 사실에 대한 설명(사례)에 도달하는 가추법의 형식을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구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 다인은 추리소설의 작가가 독자에게 탐정과 동일한 정도의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37]고 주장하였지만 그것은 일종의 허구라 할 수 있다. 모든 추리소설은 독자에게 그러한 인상을 줄 뿐 사실상 추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범인과 탐정의 대결에서 탐정이 승리할 수밖에 없듯이 저자와 독자의 대결에서 저자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독자는 결코 탐정과 동일한 추리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리소설은 독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스스로가 탐정이나 된 듯이 추리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다. 탐정의 입을 통해서 추론의 과정이 설명될 때조차 독자는 스스로의 가추법을 작동시키지 않으면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추리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추리소설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차원의 가추법을 작동시키는 것이 되고, 가추법에 따른 사고의 훈련을 의미하게 된다.

앞서 제시된 다양한 종류의 가추법 중 ①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가추법이다. 필자는 문학 교육적 차원에서 특히 ②와 ③의 가추법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의 가추법은 경제성의 원리를 핵심으로 한다. 즉 다양한 가정 중 가장 경제적인 가정을 선택하여 눈앞에서 전개되는 현상의 원인을 찾아내는 가추법이다. 이는 문학작품의 독서에서 한 작품이 얼마나 개연적인가를 판단하는 능력과 직결된다. 소설 속의 한 인물이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경제적 원리에 입각해서, 즉 개연성 있게 이루어지는가를 판단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③의 가추법은 창조성의 원리를 핵심으로 한다. 이는 문학작품의 독서에 한 작품이 얼마나 창조적인가를 판단하는 능력과 직결된다. 소설 속의 한 인물이 주어진 상황에서 독자의 모든 지식과 가치관에 입각하여 판단할 때, 전혀 개연성 있게

37) Y. Reuter(김경현 역), 『추리소설』, 문학과지성사, 2000, p.81.

행동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독자가 그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을 가정해야만 한다. 그것은 지식의 차원일 수도 있고 윤리의 차원일 수도 있으며 미학의 차원일 수도 있다. 여하튼 독자는 이를 통해 보다 성숙한 문학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추리소설의 이데올로기적 기능과 관련하여서는 일단 앞서 제시한 사물화된 세계관과 이데올로기적 함축에 대하여 끊임없는 비판적 거리 취하기를 시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추리소설에서 제시되는 범죄에 대하여 그 사회적 의미와 인간적 의미를 탐색해보고, 탐정의 발견행위가 인간에 대한 불신에 기초한 가면 벗기기 행위라는 점, 우리들의 인간관이 은연중에 얼마나 사물화 되었는가에 대해 토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문제는 비판적 거리 취하기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비정파 탐정소설에서 살펴본 추리소설의 부정적 위로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추리소설 역시 여타의 대중소설과 마찬가지로 기분전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비정파 탐정소설은 추리소설을 읽음으로써 대중들이 느끼게 되는 기분전환의 기능이 고전적 추리 소설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은 정신의 집중이 아니라, 긴장의 이완, 기분전환을 위해 대중소설을 읽는다. 대중소설은 한편으로는 산업노동으로 인해 가중된 긴장, 보편화된 경쟁 때문에[38] 다른 한편으로는 규격화된 도시생활에서 비롯되는 권태의 감정 때문에 기분전환에 대한 욕구 늘어났을 때, 이에 대해 부응함으로써 발생하였다. 추리소설도 예외는 아니다. 문제는 추리소설만의 고유의 기분전환 방식은 무엇이냐라는 점이다. 토도로프는 추리소설을 읽게 되는 독자의 흥미가 호기심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39] 그 보다는 블로호가 추리소설의 세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로

38) E. Mandel, 앞의 책, p.25.

39) 토도로프에 따르면 대중으로 하여금 범죄소설이나 추리소설을 읽게 만드는 흥미에는 두 종류의 것이 있다. 하나는 범죄가 앞으로 어떤 악행을 저지를 것인가, 즉 원인에서 결과로 향하는 '긴장감'이며, 다른 하나는 탐정이 어떻게 범죄자를 색출하게 될까, 즉

제시한 '탐정과 같은 방식으로 추측하기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긴장감'이 그 해답일 것이다. 탐정소설을 읽을 때 독자는 탐정과 같은 방식으로 추론해내 나가게 되는데, 그 때 발생하는 긴장감이 현실의 긴장감을 잊고 권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기분전환을 가능케 한다. 이는 밴야민이 지적한 '공포로써 공포를 잊기', 즉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감 속에서 여행하는 자가 기차 속에서 범죄소설을 읽음으로써 범죄소설의 공포감으로 현실의 공포감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 추리소설의 기분전환은 긴장으로써 긴장을 잊는 기분전환인 것이다. 탐정의 추론이 근본적으로 가추법을 의미한다고 할 때, 추리의 긴장이란 곧 독자가 가추법의 추론을 수행할 때의 긴장감을 의미하는 바, 긍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정파 탐정소설에 이르면 사정이 변한다. 김성동의 소설에서 발견되듯 그것은 추리의 긴장을 통한 기분전환이라기보다는 자기 위안적 허무주의를 반복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얻어지는 기분전환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다고 할 때, 문학 교육적 관점에서 취할 수 있는 방도는 무엇일까? 이 역시 고전적 추리소설에서 나타나는, 추리의 긴장에서 비롯되는 기분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비정파 추리소설에서 나타나는 위안의 기분 전환에 대해 끊임없는 비판적 거리를 취하는 것일 수밖에 없을 듯하다.

참고문헌

1. 자료

김성종, 『최후의 증인』1,2, 고려미디어, 1996.

A.C. Doyle(백미영), 『네 사람의 서명』, 황금가지, 2002.

A.C. Doyle(백미영), 『주홍색 연구』, 황금가지, 2002.

결과에서 원인으로 향하는 '호기심'이다. 전자가 범죄소설을 읽게 만드는 요인이라면 후자는 추리소설을 읽게 만드는 요인이다. T.Todorov, 앞의 글, pp.53-54.

2. 논문 및 저서

김동환, 「대중소설의 독자와 문학교육」, 『문학과 교육』, 1998 봄.
김대행, 「문학 생활화의 패러다임」, 『문학교육학』, 2001 봄.
김만수, 「대중문화와 문학교육」, 『문학과 교육』, 1998 봄.
김성도, 『현대 기호학』, 민음사, 1998.
대주문학연구회 편,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7.
이상우, 「추리소설, 다시 독자의 관심 속으로」, 『예전엔 미쳐서 몰랐어요』, 한국추리작가협회 엮음, 태동출판사, 2002.
정과리,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 『문학교육학』, 2001 봄.
조남현, 「소설교육의 정향과 대중소설 문제」, 『문학교육학』, 2001 봄.
한기호, 「독서의 대중화를 통해 우리 출판의 '르네상스'는 가능할까?」, 『한국사회의 독서 현상에 대한 조명』, 한국독서학회 10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02.5.
조성면, 『대중문학과 정전에 대한 반역』, 소명출판, 2002.
Benjamin W., "One Way Street", Reflections, ed. P.Demetz, Scocken Books, 1978.
Bloch E., "A Philosophical View of the Dectective Novel", Literay Essays, ed. W. Hamacher & D.E. Wellber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Eco U. 외 9명(김주환, 한은경 역), 『논리와 추리의 기호학』, 인간사랑, 1994.
Gramsci, A.(조형준 역), 「추리소설에 관해」, 『그람시와 함께 읽는 문화』, 새물결, 1992.
Hauser A.(황지우 역), 『예술사의 철학』, 돌베개, 1983.
Mandel E.(이동연 역), 『즐거운 살인』, 이후, 2001.
Narcejac, T.(김중현 역), 『추리소설의 논리』, 예림기획, 2003.
Nietzsche F.W., The Will of Power, trans. W. Kaufman, New York: Landom Hause, 1967.
Reuter Y.(김경현 역), 『추리소설』, 문학과지성사, 2000.
Todorov T.(신동욱 역), 「탐정소설의 유형」, 『산문의 시학』, 문예출판사, 1992.
Žižek S.(김소연, 유재희 역), 『삐딱하게 보기』, 시각과 언어, 1995.

〈초록〉

추리소설과 문학 교육

조 현 일

본고는 추리 소설의 장르적 특성에 주목하여 그것의 문학 교육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추리 소설은 한편으로는 대중소설의 일반적 특성, 즉 기분전환을 위한 오락물이라는 특성을 갖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추리라는 고유의 정신활동을 요구하는 지적 장르라는 특성을 갖기도 한다. 지적 특성으로 인해 추리소설은, 대중소설의 독서에서 한 걸음 나아가 본격소설의 독서에 이르는 매개적 단계의 독서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추리소설을 서스펜스 소설이나 범죄 소설과 구별시켜주는 본질적 표지는 '탐정'과 '탐정의 '발견의 행위', 즉 추리이다. 홈즈, 뒤팽 등의 추리는 기호학자 퍼어스가 지적한 바 있는 가정적 추론, 즉 가추법에 해당하는 논증 방식으로서, 지나치게 규범화된 가추법, 덜 규범화된 가추법, 창조적 가추법 등 매우 다양한 차원의 가추법을 모두 보여준다. 추리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독자 역시 다양한 차원의 가추법을 실행하고 지적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특히 두 번째 가추법과 세 번째 가추법은 각각 문학 작품의 개연성과 창조성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추리소설을 매개적 단계의 독서물로 설정할 때, 주의할 점은 추리소설의 부정적인 이데올로기적 기능이다. 추리 소설은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데올로기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장르의 형식적 특성 자체가 보수적 이데올로기와 사물화된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고전적 추리 소설에서 탐정이 상류계층 출신으로서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대변하고 있다면 그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비정파 탐정소설은 자기 위안적 허무주의의 반복적 소비를 조장하고 있다. 그로 인해 추리소설을 읽을 때, 끊임

없는 비판적 거리 취하기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어】 추리소설, 탐정소설, 추리, 문학교육, 가추법, 발견의 행위, 비정파 탐정소설, 지나치게 규범화된 가추법, 덜 규범화된 가추법, 창조적 가추법, 허무주의, 보수적 이데올로기, 사물화된 세계관, 서스펜스 소설, 범죄 소설, 비판적 거리 취하기

〈Abstract〉

The Tales of Ratiocination and Literary Education

Cho, Hyen-il

This study examines the generic characteristics of the detective stories(tales of ratiocination) and their literary educational roles. The tales of ratiocination(reasoning) generally have an entertaining function as a genre of popular novel, that is, providing readers with amusement and relaxation.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detective genre requires a very intellectual reasoning of the readers and for this reason the tales of ratiocination are acknowledged as an important bridge of the literary history due to thier transitional status from the popular novel to the serious novel.

The tales of ratiocination can be differentiated themselves from the other horror stories(novel of suspense) and crime stories in terms of a presence of a detective in the story and his reasoning(ratiocination), as it is, an action of discovery for a final solution. Holmes and Dupin, two famous detectives, show their way of assumptions, as Semiologist Perce indicates, reasoning of abducion, with diversity including overcoded, undercoded, and creative abduction. Readers also use their own reasoning, various kinds of abduction, in order to solve a problem. The undercoded and creative abductions are very important as they are involved in the probability and originality of the stories.

The negative aspect of the detective stories(the tales of ratiocination) should be examined when they are defined as a transitional medium to the serious novel. The characteristic of the detective genre itself is based on the conservative and material viewpoint, though it does not impose this negative ideology upon the readers by force. For example, while the classical detective stories are proceeded by a detective from a noble birth with a very conservative ideology, those of the contemporary hard-boiled detective stories reveal their nihilistic view of the world. For this reason, the critical distance should be required when we read these detective stories.

【Key Words】 tale of ratiocination, detective story, reasoning, literary education, abduction, action of discovery, hard-boiled detective story, overcoded abduction, undercoded abduction, creative abduction, nihilism, conservative ideology, material viewpoint, novel of suspense, crime story, critical distance